

10/23(월) 한-사우디 투자포럼(10.22) 이모저모

- 이번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계약과 MOU들은 특히 엄선된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짐. 사우디 투자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되어야 한다면, 행사 당일 새벽까지 양국 기업이 추진하는 협력 성과에 대한 검증 작업을 조용히 진행했다고. 이 과정에서 엄격한 선정 기준을 넘지 못한 일부 사업들은 최종적으로 MOU가 좌절되기도 했다함.
- 투자포럼 메인행사 중 하나로 개최된 ‘현대차-PIF 자동차 생산 합작투자 계약 체결식’은 당초 다른 MOU와 마찬가지로 당일 오전 별도 MOU서명식에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막바지에 사우디 정부 측의 강한 요구로 윤 대통령이 임석하는 메인행사의 주된 이벤트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짐.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는 현대차의 전기차 생산공장이 한-사우디 협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홍보를 원한 듯. 이 과정에서, 알 루마이얀 PIF 총재는 다른 일정상 당초 포럼 참석이 어려웠으나, 당일 오전에 급하게 일정을 변경해서 참석했다고.
- 포럼에 앞서 개최된 윤 대통령의 사전 환담에 사우디 기업들의 참석 요청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짐. 당초 양국 정부는 극히 소인수만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사우디 측의 강한 요청으로 참석 규모를 좁은 환담장이 허용하는 최대 인원으로 확대했다고. 행사 직전까지 사우디 기업인들이 환담 참석을 위해 치열히 경쟁했다고. 그럼에도 일부 사우디 기업들은 환담에서 제외되어 아쉽게 발걸음을 돌렸다고 함

- 사전 환담 시 윤 대통령은 아람코의 사힌 프로젝트나 사우디 국부펀드의 이차전지, 게임 등 한국에 대한 굵직굵직한 투자에 대해 감사를 표함. 특히, 한국 기업들은 기술과 경험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혁신 마인드와 근로자의 근면성 실현 자세가 어우러져 사우디의 국가 대개조 사업인 '비전 2030' 및 네옴 등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사전 환담에는 알 루마이안 PIF 총재와 함께 빈 살만 에너지부장관, 알-팔레 투자부 장관, 알 코라예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등 사우디 경제부처 장관들이 대거 참석하여 눈길. 이들은 각각 부처의 영역에서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차 다짐한 것으로 알려짐. 이들의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음

□ 빈 살만 에너지부 장관

"국제 원유시장의 안정이 매우 중요함. 지금 중동 시장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나 성공적으로 대응중임"

□ 알 파이살 STC 회장

"중동 최대의 통신사로서 비전 2030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임. 한국 통신기술이 세계 최고인 만큼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

□ 알 팔레 투자부 장관

"작년 대통령님과 왕세자님의 성공적 회담 이후 향후 50년의 성취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음. 회담 이후 인프라, 에너지는 물론 신산업 전반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

□ 알 코라예프 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새로운 산업전략의 핵심이 자동차임. 현대차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모델 사례가 되도록 할 것임. 한-사우디 협력이 단순히 중동 시장에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최적의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전세계로 뻗어나갈 전초기지가 되길 바람"

□ 알 루마이얀 PIF 총재

"PIF는 매년 400~500억불을 투자. 이중 상당 부분을 한국에 투자하고 있음. 더 많은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희망"

- 사전 환담에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선대 회장이 사우디 건설 사업에 참여한 지 50년 만에 현대차가 사우디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토대로 사우디의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 사우디가 중동의 자동차산업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이재용 회장은 "사우디가 삼성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휴대폰 사업 뿐 아니라 사우디 최초의 메트로 건설사업, 네옴 프로젝트도 같이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사우디 비전 2030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언급
<끝>